



▲테이크아웃 치킨



▲VR 놀이·학습



▲세탁편의점

성공창업 열쇠는 올해도 '올로' '가성비'

전문가가 꼽은 올 창업 트렌드

VR·앱 이용 서비스산업 강세

무인 단말기로 1인 소자본 창업

장비 지속성 등 꼼꼼히 따져야

2017년은 지속된 경기 불황과 먹거리 파동,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소비 정체 등으로 힘든 한 해였다. 이러한 이슈들을 뒤로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았다. 올로라이프의 확산과 가성비, VR의 발전과 활용 등 새해 창업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트렌드를 알아본다.

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가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프랜차이즈컨설팅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2018년 가장 영향력을 미칠 창업 트렌드로 올로라이프의 확산과 가성비(가성비)를 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로라이프의 확산과 가성비(가성비), VR의 발전과 활용이 대세 = 올로라이프는 자신의 소비 조정을 행복과 가치기반에 두면서 건강과 환경, 품위, 만족을 위한 소비충족의 생활을 의미하며 이런 트렌드가 올해에도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른 소비자의 주안점이 가성비와 만족도를 넘어 소비에 따른 심적 만족감, 즉 가성비와 상충을 중요시 하는 형태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소비자 만족도의 극대화를 위한 가성비와 소비자의 마음적 만족을 위한 서비스의 발달과 품질의 향상을 요약한 가성비와 성장에 주목할 수 있다.

첨단기술의 발달로 가상현실 시장의 확대에 따라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 아이템의 성장도 떠오르는 트렌드다. 가상현실이란 컴퓨터를 이용해 구축한 가상공간(Virtual Environment 또는 Cyberspace) 속에서 인간이 가진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 인간이 오감으로 느끼는 감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기기적 창업 아이템을 말한다. 최근 게임과 학습, 체험을 가상현실을 활용한 아이템들이 나오고 있고 컴퓨터와 증강시뮬레이션의 발전과 함께 관련 산업의 성장도 예상된다.

하지만 창업 아이템으로의 투자할 경우에는 면밀한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관련 아이템의 발전속도와 소비자의 소비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수익성과 관련 프로그램의 사행성과 폭력성 등이 우려로 대두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관련장비의 사후관리까지 세심히 고려한

후 창업아이템을 선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황에도 꾸준한 소비력의 주체가 되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도 올해 창업 트렌드의 키워드다. 이들이 적극적인 소비의 대상이자 주제로 등장함에 따라 브랜드 중심형 소비의 지속과 함께 합리적 가격을 위한 경제적 소비의 주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임금 인상 이슈...솔로이코노믹과 서비스테크놀로지 경향 지속 = 올해 최저임금의 사상 최대폭 상승과 이에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는 창업과 노동계의 이슈가 되고 있다. 창업시장도 영향을 받아 벌써부터 요동치고 있다. 소자본 창업과 키오스크 운영으로 대변되는 인건비 절감 창업과 운영 형태가 창업시장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일부는 패스트푸드업종과 라면 규동 등 이른바 소자본 창업아이템 업종에서의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운영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는 인건비의 상승과 경성비 중 관련 부분의 확대에 따른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브랜드들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서비스에 대한 기본 개념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창업관

련 키워드는 많은 부분에서 일치한다. 솔로이코노믹과 서비스테크놀로지, 합리적인 가격 등의 트렌드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솔로이코노믹의 주체인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소비형태가 나타나며 그들을 목표로 한 창업 아이템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배달앱이나, 대행업 등을 통해 서비스 산업이나 아이템들이 급격한 성장을 이룬 것도 이러한 영향이다. 이는 구매의 패턴과 형태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기술력 기반형 구매의 성장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 합리적 가격 지향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환경개선업, 세탁편의점, HMR 아이템, 복합형태의 테이크아웃 치킨이템, 여행업, 샌드위치음료전문점, 건강관련 헬스클럽, 구매대행쇼핑몰 등이 우수한 아이템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새로운 트렌드의 부상에도 올해 창업시장은 전반적으로 힘든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의 상승과 불황의 심화, 정치 격려에 따른 불안정 등 많은 부분에서의 심리적 불안감 지속되는 환경이다.

전문가들은 "창업시장의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창업보다 수성을 위한 전략, 즉 '리스크 관리형 창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지식재산 특허 심사기간 대폭 줄인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지원... 中 小 企 연차료 50% 감면

올해부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특허·디자인에 대해 우선 심사제도가 시행되고 중소기업 특허 연차료 감면 폭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올해부터 지식재산 제도와 지원 시책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11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특허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능형로봇 등 7대 산업 분야를 특허출원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해 평균 16.4개월이던 심사 기간을 5.7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출원도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해 기존 5개월이던 심사 기간을 2개월 수준으로 줄인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허·실용·디자인 연차등록료 감면 폭을 30%에서 50%로 늘리고, 9년 차까지 적용되던 감면 기간도 권리 존속기간 전

체로 확대한다. 또 창업 초기(스타트업)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국내외 지식재산 권리화, 특허조사·분석, 특허기술 가치평가, 기술이전(라이선싱) 등 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 특허바우처(500만~2000만원 범

위)을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개인이 특허청에 납부한 연간 출원료와 최종등록료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금액규모에 따라 일정 비율(10~50%까지 차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기타 수수료 납부 때 이용하도록 한다. 중소·벤처 기업 출원인을 대상으로 선형기술조사 결과를 심사 전에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상표권 설정등록과 함께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할 때도 별도 포기서 제출 없이 납부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간소화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조계현 소장의

특 특 창업 이야기



프랜차이즈는 여전히 블루오션

누군가는 한국의 프랜차이즈 산업이 '포화상태'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블루오션'이라고도 말한다. 필자에게 어느 주장이 맞다고 묻는다면 기꺼이 블루오션이라는 주장에 더 무게를 두지 않을 것이다. 특히 로컬 프랜차이즈 분야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의 수준인지라 더더욱 블루오션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평범한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경쟁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여 인위적으로 덩치를 키우는 기업형 프랜차이즈 사업방식이 아닌 독립창업 형태의 경쟁력있는 아이템으로 승부해서 입소문에 의해 빠르게 가맹점이 확산되는 성공복제형 프랜차이즈 시장은 여전히 유효하며 최근 들어서 성공한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이런 형태의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른 독립창업자들이 자신의 성공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언제든지 다크호스로 부상할 수 있다는 창업시장의 특징 중 하나다.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통한 성공의 기회는 모든 예비창업자들에게 열려 있는 셈이다.

지역 예비창업자들의 수도권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선호도가 시들해지면서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한 가맹점의 수익성이 높아지는 장점과 근거리에서 본사가 있어서 가맹점 관리와 지원에 유리한 장점을 가진 형태의 로컬 프랜차이즈 시장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아직은 진입단계를 넘어선 독립창업보다는 잘 되는 타 지역 창업아이템의 카피형 브랜드들이 많은 것이 작은 흠이라면 흠이지만 현실적으로 카피형 브랜드들도 지역에는 필요한 상황인지라 이 또한 로컬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징으로 해석해줘야 할 것 같다. 물론 더 좋은 그림은 창의적인 아이템을 기반으로 지역을 선택한 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다. 이는 향후 로컬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집중해야 할 미래비전형 로컬프랜차이즈 사업방향이겠다.

예비창업자들에게 교육을 할 때 마다 추천하는 창업형태는 아이템의 독창성과 차별화 요소를 정확히 탐재하여 상표나 디자인까지 웬만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신규 브랜드 런칭처럼 향후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까지 염두에 둔 창업을 하라는 권유를 많이 하게 된다. 단순한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염두에 둔 창업의 창업비용 편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에 그런 미래지향형 창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예비창업자들은 자신이 창업할 독립매장 형태의 창업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비슷한 창업비용을 쓰고도 너무 낮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

이제라도 창업을 앞둔 예비창업자나 이미 성공적인 안착을 한 기존 자영업자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단기적인 시각으로 창업을 준비하거나 현재의 성공에만 머물지 말고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염두에 둔 창업을 하고 기존 성공점포는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통한 더 발전된 형태의 사업까지 꼼꼼히 보길 권한다.

2018년에는 또 어떤 아이템이 대박 아이템으로 떠오르게 될 것인지, 전국적인 스타브랜드로 떠오를 브랜드는 또 어느 지역에서 탄생할지 기대하고 지켜보는 즐거움이 크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그런 아이템과 브랜드가 광주와 전남에서 많이 탄생하여 전국을 움직이는 지역의 대표브랜드로 우뚝 서주길 바란다.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속옷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를 받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사용 및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효과)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 건강을 생각하는 속옷입니다.

<p>아모리이온</p> <p>브라+슈트+거들 4개국 특허 3년 일체형 슈트</p>	<p>아모리이온 롱바디</p> <p>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년 일체형 슈트</p>	<p>아실리 바디슈트</p> <p>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p>	<p>비비드 아모르</p> <p>러닝+팬츠 2년 일체형 남성용 슈트</p>
--	--	--	--

대표전화 1588-2219